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새벽 제단의 부흥을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디모데프로젝트 3,4단계를 위하여
- 하나님의 VIP 3기를 위하여
- 마더와이즈를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NWBC 주총회(11/6-8)를 위하여
-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를 위하여(11/19)
-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 크리스마스 칸타타 위하여(12/2)
- 2018년도 세월질 일꾼을 위하여
- 작은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
아름다운교회-팀황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행복한 침례교회-김미성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처소교회
- ▶ 밀알선교단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이완구 장학사업
- ▶ 사론센터
- ▶ 한국선원 선교회
- ▶ 소울싱어즈
- ▶ 작은교회 살리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베네수엘라(경경석)
- ▶ 니카라과(전구/한미경/해미턴)
- ▶ 도미니카 아이티(최기철/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권민정)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의료사역 Healing 153
- ▶ 아시안 암 환우회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KCN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직영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섬기는 사람들 Serving Staff

담임 목사	최성은	원로 목사	문창선
수석 부목사(예루살렘/베들레헴)	민철기/253-444-8853	은퇴 안수집사	이세진 정영길 곽저로 박종길 권태운 양태규
한어권 공동체 목사(안디옥/필라델피아/시니여)	유 훈/253-651-9152	시무 안수집사	유성렬 함명호 김인도 오금철 마이클 갠빈 리차드 데드리지 데니 윌리암슨
기도원/건물관리 목사	안광일/253-335-9101		명희터너 주영컬쿠우드
영어부 목사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서무	명숙헨리 토루마즈다
어린이 사역 총괄 목사(빌립보/에베소)	남궁관/253-753-8310	관리	유영숙 장신영
행정 목사(유스&영어청년)	안재훈/253-365-1105	반주자	주사랑 윤지우 권수현
마더와이즈/유년부사역지원	최수진/615-516-0389	1부 지휘자	김민희
영아/유치 사역 지원	남궁민희/253-753-8312	2,3부지휘자(음악디렉터)	채병관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헴)	봉숙오글/253-359-7869	찬양 인도	이한뢰 정혜원
협동 목사(사랑부)	장영준/425-444-1669	통역	한중세
미디어 및 한어청년부	장선범/469-353-3446	음향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창립 1975. 11.2

2017년 11월 5일(창립 감사주일)



fbc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교회 253) 535-5803 Fax 253)535-2240 www.fbcc.org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비전선언문 Vision Statement

라디오방송설교: 매주일 오전 8:30-9:00, AM 1450Hz 코렘TV방송설교: 매주목요일 오전 8:10,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주일성경공부 Sunday Service		
장년부	1부 한어예배	AM 07:55	장년(한어)		AM 09:30
장년부	2부 영어예배	AM 09:20	Korean Adult		
장년부	3부 한어(통역)	AM 11:00	장년(영어)		AM 11:00
한어청년	KCM	AM 11:00	영어청년 YAM		PM 01:00
영어청년	YAM	AM 11:00	한어청년 KCM		PM 01:30
학생부	Youth	AM 11:00	학생부 Youth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09:20/11:00
사랑부(장애부)	Agape Class	AM 11:00	영아부 Nursery		AM 08:00/09:20/11:00
수요일예배 Wednesday Service			금요일 Friday		
장년한어	Korean Adult	PM 07:00	한국학교 KLS		PM 07:00
영어	English Adult	PM 07:00	학생부 Youth		PM 07:00
유년부	AWANA	PM 06:45	영어청년부 YAM		PM 07:30
유치부	AWANA	PM 07:00	한어청년부 KCM		PM 07:00
토요일 Saturday			새벽기도 Early Bird Prayer		
한어청지기모임		AM 07:30	한어/영어 KM/EM		AM 06:0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07:55

인도: 민철기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설교: 최성은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부 / TFBC 찬양팀

* 교 독 문 1부 / 64번 감사절(1)
3부 / 64번 감사절(1)

기 도 1부 / 김정숙 집사
3부 / 이재찬 집사

봉 헌 1부 /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41장(1절)
3부 /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 거룩한 곳

성도의 교제 3부 / “아픔의 축복”

공동체 소식

성가대 찬양 1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3부/ “주의 축복 내려 주소서”

* 성경 본문 마태복음 22:35-40

말씀 선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시리즈**
1.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응답 찬송 1부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3부 / “나는 예배자입니다”

축도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찌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찌어다” (시편 105:1-23)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

□ 제목: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 본문: 로마서 1:17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초기 300년간 극심한 핍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난의 공동체였던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로마제국의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통해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 갔습니다. 마침내,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으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시민 종교가 된 기독교는 미술, 문학, 음악, 건축 등 유럽지역의 문화에 큰 영향 미치며, 외형적인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핍박에서 벗어나자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초 카톨릭교회(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이 절대 권력을 가진 종교권력 집단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고파는 성직매매가 성행했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전사 및 기독교 성인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등 교황의 절대 권위와 기독교 유지를 위해 하나님과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타락한 모습에 반기를 들기 위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로마교황청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신앙 고백서를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3가지 모토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1.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고, 함께 길을 가다가 번개에 친구가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겪으며 두려움 가운데 수도사로 헌신 하게 됩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한 부서인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삶을 살며,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 수록 그는 [죄인의 불안한 양심에 괴로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증오했다] 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 하던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응답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인간은 율법, 고행, 공덕, 의로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구원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루터에게 비로소 복음으로 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향해 배부시는 선의 (good will) 오 하나님의 호의 (favor)가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행과 선행에도 구원의 확신과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없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자고 계으르고 타락한 기독교를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2. 오직 말씀으로 (Sola Scriptura)

종교개혁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이 전부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미 오래된 언어인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기독교 안에서 절대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쉽게 왜곡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고, 해석하고, 전달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여 그 말씀의 본질자체를 왜곡하니, 교회와 성도는 영적 기아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아 세례의 비성경적인 구원관, 면죄부 판매와 십자가군 전쟁 등 기독교 역사의 매우 수치스러운 죄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들 사건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 보다 앞서 성경을 번역한 죄목으로 화형 당한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과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높다고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한 체코의 얀 후스는 루터 보다 앞선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도망쳐 생활을 할 때, 그는 라틴어 신약 성경을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도 읽지 않는다면,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할 것입니다.

3.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로마교황청은 자신들의 기독교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황의 절대 권리를 주장하고, 고행과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속된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엡 2: 8-9).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뒤돌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죄인이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의 옷을 갈아 입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은 계획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믿음이란, 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잘못된 카톨릭의 모습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의 믿음의 유산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릴 각오가 되어있습니까? 나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줄 것 인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으려는 나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 생명 책과 나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문)

- 1.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읽을 수 있기 까지 수많은 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나는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2.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울 것 인니까?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며

제가 일년에 한 두 차례 목회자들이 연장과정으로 공부하는 목회학 박사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 과목 중에 [교회 갱신]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성장이란 과목이 한 20년간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제는 그 과목이 없어진 지 벌써 꽤 되었습니다. 그 과목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 시킬 것인가를 가르치는 과목이었고 시대적으로 그 때에는 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였기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강의실이 모자랄 정도로 그 과목이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신학교도 [교회 성장]이란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 갱신-Church Revitalization] 혹은 [교회 쇄신 Church Renewal]이란 과목을 요구합니다.

[교회 갱신]과 [교회 쇄신]이란 과목이 생기게 된 것은 현대의 교회가 이제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역사가 있는 그 교회를 이제는 얼마만큼 성장시키느냐 보다는 얼마만큼 건강하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노쇠하고 비정상적인 교회도 다시 건강해지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반드시 성장하기 마련이니까요.

제 수업에 마지막에는 학생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들을 조사 연구하여 교회갱신에 실패하거나 성공한 이야기들을 리포트로 써서 제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개 정도의 교회를 리포트 받았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래된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목회자가 오랫동안 시무한 교회는 보기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에 한 한인 교회는 역사가 41년이 되었는데, 목회자가 무려 16번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자가 인내가 부족하거나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목회자가 버티지 못하도록 한 성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2번째 생일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5년에 Lakewood Baptist Church 란 미국 교회에서 미국 형제님들이 한국인 아내들을 위하여 한국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11월 2일 즉, 첫 주일에 조기선 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가 지키는 창립 기념일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1980년까지 5년간 사역하시던 조 목사님은 떠나시고, 그 해 9월에 현재의 원로 목사님인 문창선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1대 조기선 목사님은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시고, 2대 문창선 목사님께서 그 위에 30년간 교회의 [건축과 성장]이라는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첫 신년 예배를 3대 목사인 제가 부임하면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년이 지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42년간 단 3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여기까지 바빠 달려 왔지만,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의 큰절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 감사절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영혼 구원과, 물질의 봉헌과,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함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로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 12]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수요찬양예배

Praise Service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인도: 민철기 목사

수요일 저녁 7시

찬양과기도 찬양 팀
 기도 경옥켈리 집사
 제목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본문 마태복음 25:31-40
 말씀선포 김명부 목사(사론센터 원장)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도 Prayer	1부 김정숙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경옥켈리 집사	1부 염준식 집사 3부 이정빈 집사 수요 영숙젼잘스 집사
보육	영아 김연정, 주영컬클우드 유치 김미영, 권정숙	영아 순동컬루, 정애랜드 유치 봉점랭, 이유연
주차장 Parking	권경수, 박용식(2부) EM (3부)	권태운, 임성남(2부) EM (3부)
예배위원 Usher	안내: (1부) 박선영, 이정엽, 주지희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셰, 철옥핏셔, 김정숙, 정수잔슨, 염성욱 헌금: (1부) 김영숙, 인자길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광경성, 이호영	
주일오찬 봉사	11/05 필라델피아 공동체 유희 마을, 빌립보 공동체 군인 마을 11/12 빌립보 공동체 장경희 마을, 베들레헴 공동체 한중세 마을 11/19 빌립보 공동체 김인도 마을, 예루살렘 공동체 경옥켈리 마을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일부 사역은 교회 및 부서 사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7년 11월		2017년 12월	
5(주일)	창립 42주년 기념감사예배 썸타타임 해제	2(토)	크리스마스 칸타타
6(월)-8(수)	NWBC 주총회	9(토)	침례교육
11(토)	침례교육	10(주일)	사무처리회/타코마지역 성탄연합예배
12(주일)	전도회 월례회	15(금)	성탄 캐롤링
17(금)	시니어 공동체 모임	16(토)	헌아교육
19(주일)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침례식	17(주일)	성탄 뮤지컬
26(주일)	제직회(결산)	24(주일)	성탄연합예배/침례식
		25(월)	성탄/성찬 연합예배
		27(수)-30(토)	학생/영어 청년부 수련회
		31(주일)	새가족 격려모임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 VIP 10주 과정(년 4회 개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을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11/12월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달로 지킵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최고의 격려를 선교지에! 보내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11/5(오늘)은 창립 42주년 감사예배로, 11/19(주일) 추수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최고의 감사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초대장:** 11/19(주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연합예배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나누어 드린 초대장은 초청할 대상자들(VIP)에게 각 가정별로 선물(\$10선)을 준비하여 추수감사연합예배 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방문한 VIP와 VIP를 전도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하베스트 나잇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마을 공동체 모임:** 11/5(주일), 11/19(주일)은 예수마을 공동체 마을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마을 모임 후,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님 동정:** NWBC 서북미 주총회(11/6-8) 설교와 뉴비전 교회 제직 세미나 및 주일설교(11/11-12)를 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사론센터 원장이신 김명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 다음 주일예배 특별설교:** 남궁곤 목사(어린이부 사역자) 다음세대를 위한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 침례교육:** 11/11(토) 오후 1시. N-209호. 희망하시는 성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바람.
- 성탄절 헌화:** 강단을 장식할 포인세티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 한개 당 \$10)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데이케어 오전, 오후 파트 타임** 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박정희 집사
- ◇ **생명의 삶 11/5(주일) 주간** ※ 새벽설교는 홈페이지(www.tfbc.org)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날짜	본문	날짜	본문	날짜	본문
11/5(주일)	아모스 4:1-13	11/6(월)	아모스 5:1-13	11/7(화)	아모스 5:14-27
11/8(수)	아모스 6:1-14	11/9(목)	아모스 7:1-9	11/10(금)	아모스 7:10-17
11/11(토)	아모스 8:1-10	11/12(주일)	아모스 8:11-9:6	11/13(월)	아모스 9:7-15

◆ 교우동정(Compassion) ◆

번호	성명	가족	인도자
243	강은이	Mia(11.25.2005) Jenna(11.2.2007) Isabella(1.3.2011)	스스로
244	안창모		스스로

- ◇ **목회자 동정** 안광일 목사 휴가. 11/9-15
- ◇ **소 천** Virginia Carolina Basinger Stone(명희스톤 시어머니) 10/29(주일)
- ◇ **중 보** Frank Torres, George Guy, 문미훈, 종업페이건, 사영실, 제스민
- ◇ **파 병** 강신재, John Hendershot



11/19(주일) 추수감사연합예배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초대장을 가정에서 준비하신 선물과 함께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주일	금 주 경자아담스(46주년결혼기념)	※ 기념일을 맞아 주일오찬(주일오찬비용:\$300)
오찬	다음주 안재훈(생일 감사)	으로 섬기실 분들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주차장 및 배수관 공사를 위한 작정서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현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전교인 천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 그루당 \$1,200) 현 작정현황: 796그루/\$955,200
 현 현금액: \$918,306.02